2001 년 정부투자기관 경영 평가 1위

최태희 한국도로공사 부사장

"공기업 표준 모델을 완성해 나갈 터"

한국도로공사가 '2001 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경영 목표 달성도와 수익성, 그리고 서비스 개선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12 개 정부투자기관 중 지난해 가장 뛰어난 실적을 올린 것이다. 특히, 도로공사는 지난해 서해안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대전 진주간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10 개 구간 542.1 km를 개통시켜 연간 2조 1,000 억원에 달하는 물류 비용을 절감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속도로 건설 물량 증가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 진행된 강도 높은 경영 혁신 추진 노력도 경영 평가단으로부터 호평을 얻어냈다.

도로공사가 경영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1969 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그런 만큼 공사 직원들이 느끼는 자부심과 보람은 남다르다. 직원들은 지난 30 년 간 고속도로 건설에 매진해 국토의 대동맥 2,600 km를 개통시킴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온 노력을 이제야 제대로 인정받았다며 만면에 희색을 띠고 있다. 지금까지의 여정이 힘들었던 만큼 성취감도 큰 것이다.

이러한 창사 이래의 첫 경사에 그 누구보다 가슴 벅차하는 이가 있다. 바로 최태희 부사장이다. 그는 '도로공사의 살아 있는 역사'이다. 1973 년 입사해 30 년 가까이 재직하면서 경인고속도로 확장 공사, 영동고속도로 확장 공사, 대전 진주간 고속도로 신설 공사 등 수많은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였다. 최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오랜 기간을 근무하며 어려움이 많았지만 고속도로 개통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문화 교류가 확대되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번 경영 평가 1위는 우리 회사가 앞으로도 국민들의 교통 편의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기뻐하였다.

최 부사장은 지난 1995 년 도로공사 최초로 환경 친화적 고속도로 건설을 주창하였다. 이처럼 그가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환경 친화를 강조한 데는 대전 진주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당시 사업소장이었던 최 부사장은 이 고속도로가 지리산, 덕유산, 경호강 등 수려한 자연 경관을 파괴할 경우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크다는 점을 내다보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건설하자면 환경 파괴는 당연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던 직원들은 소장의 생각을 마뜩찮아 하였다. 이에 그는 지리산 등반 등을 통해 환경 친화적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직원들의 인식도 점차 바뀌어 갔다. 이후 환경 친화적 고속도로 건설은 모든 도로공사 현장의 슬로건이 되었고, 그 자신도 1996 년 환경부 장관상, 그리고 지난해에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하였다.

2001 년 7월 부사장으로 승진한 최태희 부사장은 요즘 지난 1년 간의 경영 혁신을 바탕으로 도로공사를 공기업의 표준 모델로 만드는 데 정성을 쏟고 있다. 그가 말하는 공기업 표준 모델이란 정부나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채산형 공기업으로 재무적 측면에서 경제적 부가가치가 제로인 상태, 고객 측면에서는 만족도 1위인 기업을 의미한다. 그가 꿈꾸는 세계 최고의 고속도로 종합 서비스 기업상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그는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여 완성한 도로공사 경영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전략적 평가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고효율 · 고성과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들을 기업 문화로 체화시키는 한편 선진 노사 문화로 정착시킬 심산이다.

최 부사장은 "강도 높은 경영 혁신 추진으로 나타난 성과들을 고속도로 건설에 투영해 고속도로 6,000 km 시대를 앞당겨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우 · 기자 · hwlee@cerik.re.kr